# 정치는 '타이밍의 예술'…선거 예측 '시계 제로'



#### 새판 짜인 전남지사 선거

전남지사 유력 후보였던 이개호 의원(더불 어민주당)이 중앙당 만류로 출마를 포기함으 로써 6·13 지방선거의 도지사 선거 구도가 새 판으로 짜이게 됐다. 당초 전남도지사 선거는 이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평화당 박지원, 바른 미래당 주승용 등 현역 의원 3인방의 한판 승 부가 점쳐졌으나 주 의원에 이어 이 의원까지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이러한 '빅3' 경쟁 구도 는 이제 물거품이 됐다.

이개호 의원이 결국 꿈을 접게 된 이유는 "국정 주도권을 보수 야당에 넘겨서는 안 되 기 때문"이라는 것이다. 아닌 게 아니라 민주 당 지도부는 현역 의원 대거 출마 시 원내 1당

이개호 의원 민주 1당 잃을까 자의반타의반 꿈 접어 절호의 기회에서 타이밍 놓쳐 지지자들 진한 아쉬움 아직 3개월 남아 … 또 어떤 변수 생길지 누가 알까?

지위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그동안 줄곧 우려해 왔다. 원내 1당 지위를 잃게 되면 지방선거 기 호 순번에서 1번 자리를 잃을 수 있는 데다 하 반기 국회에서 원내 1당이 차지하는 국회의 장직도 잃을 수 있다.

이춘석 사무총장이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 서 출마 가능한 현역 의원 수를 최대 3석으로 제한하겠다며 현역 의원 출마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.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자의 반타의반 혹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'국정 의 성공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 이기로' 한 것이다.

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지지율 하락을 비롯 한 당 안팎의 사정에 따라 꿈을 접었던 주 의 원과 달리 이 의원의 경우 당선 가능성이 상 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 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 다. 사실 이 의원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였다. 정치는 흔히 '타 이밍의 예술'이라고들 하며 타이밍을 놓치면 회생하기가 쉽지 않다. 그에게 앞으로 또다시 어떤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지만, 우리는 타이 밍을 놓쳐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다.

과거 안철수 전 의원의 '아름다운 양보'도 많은 칭송을 받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의 정 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호기를 놓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. 공교롭게도 이개호 의원은 손학규계로 분류돼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손학규 전 의원이 토굴 속에서 나온 시기도 너 무 늦었거나 빨랐으니 결국 타이밍을 놓친 것 이다.(도올 김용옥은 지난 총선에서 김종인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을 때 손학규가 수락했더 라면 당권은 물론이고 단숨에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)

기자는 30여 년 전 이개호 의원이 도청 계 장을 하던 시절부터 줄곧 지켜봐 왔다. 그는

굉장히 친화력이 있고 기획력이 뛰어난 인물 이었다. 도지사는 늘 바뀌었지만 새로 온 도 지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그의 능력을 알아 주었다. 그가 공무원 생활 내내 탄탄대로를 걸은 것도 그 때문이다. 그런 점에서 그가 이 번에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 게 된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.

이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김영록 농림 수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등이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에 나설 것 으로 보인다. 김 장관은 오늘 이임식을 마친 뒤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며 신 비서관 역시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. (김 장관의 후임으로는 이개호 의원이 유력시

민주평화당에서는 관록을 자랑하는 박지 원 의원의 출마가 확실시된다. 박 의원은 아 직 공식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적 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다. 어찌 됐든 유력한 후보였던 이개호 의원의 불출마 선언 으로 전남지사 선거전 구도가 '새 판'으로 짜 이게 됐다. 하지만 선거가 아직 3개월이나 남 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.

#### 6⋅13 선거 현장

#### 기초단체장 후보

#### 강인규, 출판기념회…나주시장 재선 도전



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11일 출판기념회를 열 고 6·13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 보에 돌입했다.

나주 스포츠테마파크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열 린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의원, 이개호의원, 이종 걸의원, 손금주의원,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

관, 김홍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, 나주지역 시·도의원 및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.

강 시장은 "나주에서 나고 자라며 겪어 왔던 이야기들과 민선6 기 동안 나주의 성장과 미래 비젼에 대한 생각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"며 "나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희망한다"고 밝혔다. /나주=손영철기자 ycson@kwangju.co.kr

#### 김현복, 장흥군수 출마 출판기념회



장흥군수 출마 예정자인 김현복(56) 장흥군번 영회장이 14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저서 '농어촌, 무엇이 답인가?'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.

이날 행사에는 신문식 더불어민주당 장흥·보 성·강진·고흥지역위원장을 비롯해 600여명이

김 회장은 "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좌절할 때나 곤란지경에 빠 지거나 다시 꿈을 도전할 때마다 '백척간두진일보(百尺竿頭進一 步)'라는 좌우명이 큰 보탬이 됐다"며 "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고민할 기회를 달라"고 지지를 호소했다.

/장흥=김용기기자·중부취재본부장 kykim@

#### 자동차밸리추진위 비리 의혹

#### 광주시, 기부금 사용내역 감사

광주시는 사단법인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 원회(추진위) 기부금 부적정 사용 의혹과 관련 해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.

시 감사위원회는 논란의 핵심인 추진위 기 부금 모금 규모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계획

공정한 감사를 위해 관련 추진위와 연관이 있는 이모 본부장과 전모 과장을 업무에서 배 제하고 대기발령했다.

추진위 기부금 감사와 후속 조치 등에는 보 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. 자 동산업밸리추진위 기부금 논란은 지난 3일 열 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주경님(서구4) 의원이 기부금 자료 제출 거부와 시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면서 불거졌다.

당시 시는 시비가 쓰인 예산을 어떻게 사용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추진위가 받은 기 부금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

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는 2014년 말 광주 자 동차산업밸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내 공 감대를 형성해 사업 성공을 지원한다는 명목 으로 민간에 의해 조직됐다. 지금까지 시비 15 억원이 지원됐고 매년 1억원 가량의 외부 기부 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

이에르코펠 등 국내외 20개국 20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.

신재생에너지 박람회 'SWEET2018' 개최 신재생에너지 전문 박람회인 'SWEET2018' 행사가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.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한전을 비롯해 독일의 카코뉴에너지, 바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#### 노벨평화상 존번 광주 '빛고을 아카데미' 강연

200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에너지 석학 존번〈사진〉 미국 델라웨어대학 석좌교수가 14일 광주시청을 찾아 눈길을 끌 었다. 그는 이날 청사 무등홀에서 열린 '제75 회 빛고을 아카데미' 강사로 초청돼 '친환경, 신재생에너지 관련 동향과 전망'을 주제로 강

존번 교수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만난 자리 에서 "인권에 취약한 사람들이 환경에서도 취 약한 것이 현실이다. 그만큼 인권과 환경은 밀 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"며 "인권이 그렇듯,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환경도 모든 사 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되어야 한다"고 강



윤 시장은 존번 교수에 게 광주의 인권정책과 친 환경자동차산업·에너지신 산업 등에 대해 설명했으 며, 존번 교수는 이에 "신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학

자로서 광주의 여러 변화 가 인권, 환경, 평화 등과 융합되어 하나의 흐 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"고 말

/윤현석기자chadol@kwangju.co.kr

#### 광역의원 후보

#### 명진, 17일 선거사무실 개소



명진(51) 광주시의원(서구제2선거구) 예비후 보가 오는 17일 서구 구영드림빌 206호에서 사 무실 개소식을 연다.

5·18주역 명노근 선생과 오월 어머니 안성례 전 시의원의 자녀인 명진 예비후보는 "그동안 지켜만 보던 눈, 듣기만 했던 귀, 말을 아꼈던

입, 생각에만 그쳤던 마음을 이제 행동에 옮기려 한다"며 "광주 의 딸이 되어 광주를 위해 일하겠다"고 말했다.

명 예비후보는 이어 "마을에 거주하며 피부로 느낀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풀어가겠다"며 "아이들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활동 기 반을 구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, 마을주민을 보호하는데 주력하

명 예비후보는 19대 문재인후보 광주선대위 공동전략기획본부 장과 민주당 서구갑 지역위 여성부위원장 등을 지냈다.

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#### 100년 향한 호남 정통지



# 새로운 세계를 보다 밝은광주안과가 🚺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(현 의료진 그대로)

## <mark>정부지원</mark> 농·어촌 태양광 사업안내

산업통상자원부 🧼 에너지관리공단

👸 농협

5년거치 10년상환, 년 1.75%가능

90% 융자지원사업 / 선착순 접수

연금발전소



▶ 실제 농·어업인에 한함(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) ▶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

### 明日四日

▶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

▶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(25년동안 년평균 3,000만원)

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(5,000평 이상)

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

해가온에너지 (주) 해가온 개발

전국대표 1588-1543 이사 010-3645-1479

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~5층